

대학의 세계시민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송하석**

1. 도입: 세계시민 개념과 세계시민 교육의 등장
2. 세계시민과 세계시민 교육
3. GCED의 국내,외 현황
4. GCED와 대학의 교양교육
5. 맺음말

■ 국문요약

급속한 세계화와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국가를 넘어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대학에서 세계시민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글은 대학의 교양교육으로서 세계시민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GCED는 내용도 광범위하고 그 목표도 다차원적이어서 단일한 교과목을 통해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GCED를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다양한 역량이 단일 교과목을 통해서 길러

* 이 글은 아주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국제 교양교육 포럼 “세계시민 교육과 교양교육”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이 논문을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들의 코멘트는 이 글이 좀 더 명료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교수, hasong@ajou.ac.kr

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결국 인문학,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라는 전통적인 자유 학예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GCED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자유 학예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캡스톤 교과목을 덧붙이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계시민 교육을 하는 방안이다.

주제어 ● 세계시민성, 세계시민 교육, 통합 교과목, 자유학예 교육, 교양 캡스톤

1. 도입: 세계시민 개념과 세계시민 교육의 등장

20세기 후반 이후 세계는 급속하게 진행된 세계화로 경제, 정치, 환경, 기술 영역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급진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교통의 급속한 발달로 지구 어느 곳이든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편리함의 이면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심화되고 있는 빈곤과 불평등, 생태계 파괴와 기후 변화, 그리고 최근 겪었던 팬데믹 등 국가 단위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류 공동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국가 간의 상호연계 및 상호의존성은 세계화의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류 공동의 문제에 전 세계가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자각이 생겨난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인류는 이제 근대 이후 발생한 민족국가에 속한 시민을 넘어서 인류의 공동의 위기에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세계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2012년 9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에서 “우리는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교육은 글을 쓰는 능력과 산술능력 이상의 것이다. (...) 교육은 사람들이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인 사회를 만들도록 돕는 본연의 역할을 온전히 떠맡아야 한다.”(UNESCO, 2014)고 언급함으로써 “세계시민 의식 함양”을 강조하였다. 이후 2015년 유엔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을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4번째 교육 부분의 일곱 번째 세부 목표로 세계시민 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이하 GCED)이 포함되면서 세계시민 교육은 국제사회에서 주요 주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 글은 GCED가 무엇인지 그 목표와 목적을 살펴보고, 그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외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GCED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양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GCED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교양교육이 GCED의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세계시민과 세계시민 교육

GCED란 간단히 말해서 글로벌 시민 의식을 지닌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그렇다면 세계시민(global citizen)이란 어떤 존재일까? 박순용은 세계시민을 “지식과 비판적 문해력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박순용, 2020, 41)로 정의하고, 파이크(G. Pike)는 “전 지구적 차원의 복지, 환경,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책임감 있는 시민”(이윤주, 2016, 230 재인용)으로 정의한다. 옥스팜은 능동적이며 책임감 있는 세계시민이라면 무엇을 이해하고 알

이야 하는지(지식 및 이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길러야 하는지(역량 및 기술), 그리고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가치 및 태도)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설명한다.(Oxfam, 2015, 8)

지식 및 이해	역량 및 기술	가치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의와 평등 · 정체성과 다양성 · 세계화와 상호의존성 · 지속 가능한 발전 · 평화와 갈등 · 인권 · 권력과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사고 · 공감 · 자기인식과 성찰 · 소통력 · 협력과 갈등 해소 · 복잡함과 불확실함에 대한 대처 능력 · 지식을 바탕으로 한 성찰적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체성과 자부심 · 사회정의와 평등에 대한 헌신 · 인간과 인권에 대한 존중 · 다양성에 대한 존중 ·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헌신 · 참여와 포용에 대한 헌신 ·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옥스팜의 설명을 정리하면, 결국 세계시민이란 평화, 인권, 다양성, 정의, 민주주의, 관용 등과 같은 보편적인 핵심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지식),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역량),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GCED는 이런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네스코는 GCED를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지식, 역량, 가치 및 태도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안하는 방법에 대한 일종의 관점적 패러다임”(UNESCO, 2014. p. 9)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GCED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영역(domains)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세계시민이 지녀야 할 지식과 이해를 함양하는 인지적 영역, 그리고 지식과 이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지녀야 할 다양한 역량과 기술을 훈련하는 사회·정서적 영역, 끝으로 실천을 훈련하는 행동의 영역이 그것이다. 유네스코는 GCED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학습영역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UNESCO, 2019, 15)

학습 영역	내용
인지적 영역 (Cognitive Domain)	· 전 세계, 권역, 국가, 지역사회의 이슈, 다양한 국가 및 국민들 간의 상호연결성과 상호의존성을 비롯해,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 비판적 사고를 습득한다.
사회정서적 영역 (Social & Emotional Domain)	· 보편적인 인류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며, 가치와 책임, 공감, 연대,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공유하고,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감당한다
행동 영역 (Behavioral Domain)	· 보다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결국 GCED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지구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을(박구용, 2022 82) 포함하여 세계시민성 또는 세계시민 의식(Global Citizenship)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체화할 수 있는 실천적 행위 교육이어야 한다.

조대훈은 GCED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GCED의 페다고지는 전통적인 윤리 교육으로서 시민교육의 페다고지와 달라야 함을 강조한다.(조대훈, 2020, 64)

<전통적 시민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의 페다고지 차이>

	전통적인 시민교육 페다고지		세계시민 교육 페다고지
주된 관심/목적	소속 국가 이익의 극대화와 국가내 현상, 문제 초점	⇔	국가 이익과 지구촌 사회 상생의 조화 지향, 지역-국가-세계의 상호연결성 강조
학습자 이미지	수동적 학습 주체로서 학습자		능동적 학습 주체로서 학습자
교육과정 지식	국가가 정당성을 부여한 지식 습득과 평가의 강조		지식의 구성성, 특수성의 이해 강조
교수 방법	단일 학문 중심의 지식, 내용 전달 중심의 교육		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과정 및 문제해결 중심의 교수법
시민교육 접근법	사회가 강조하는 핵심 가치, 자질에 대한 규범적 학습		학습 내용과 연계된 시민 참여와 시민 행동 강조
적용 범위	단기적, 공식적 학교 교육 중심		지역 사회의 연계를 활용한 전 학교적 접근 강조

이를 토대로 GCED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인 시민교육은 학습자를 전달된 지식을 수용하는 수동적인 학습자로 간주하지만 GCED는 학습자를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공정하고 관용적이며 발전이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다. 둘째, 기성세대의 가치 체계와 규범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전통적 시민교육과 달리, GCED는 학습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깨닫고 보다 나은 세계,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이다. 셋째, GCED는 단순히 지식 습득 중심 교육이 아니라,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주어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심,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이다. 끝으로 GCED는 실천, 행동 지향적 교육이다. GCED는 “배우는” 교육을 넘어 “실천을 하고, 그 실천을 통해 학습하는 교육”이다.

3. GCED의 국내,외 현황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GCED를 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GCED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간단히 살펴보자. GCED를 가장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교수한 대학은 영국의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of London, UCL)일 것이다. 런던대학의 교육연구소는 GCED를 연구하는 전 세계 학자들의 모임인 ANGEL(Academic Network on Global Education & Learning)을 구성하여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연구서를 출판하고 있다. 또한 런던대학은 교육학과를 중심으로 다양한 GCED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강의하고 있다. 그 외에 오스트리아의 클라젠푸르트 대학,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을 비롯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대학에서 GCED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도 하버드대학, UCLA, 컬럼비아대학, 그리고 캐나다의 앨버타대학 등도 GCED를 강조하고 있다.(정우탁 160ff) 그러나 최근 몇몇 대학에서 보편교육

으로서 GCED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 등의 GCED는 주로 GCED를 담당할 전문가를 위한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타로찌(M. Tarozzi) 교수의 교육 경험은 주목할 만하다.

타로찌 교수는 GCED의 구체적인 교수법은 상호 문화주의(interculturalism)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기반해야 하며, 그 방법은 횡단적(transversal),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체험적,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볼로냐 대학에서 글로벌 시민 역량에 대한 과목을 개설하여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다학제적 강의와 함께 학생들의 주도성(agency)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사회적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연극을 비롯한 실천적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나아가서 학생의 활동이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로 열려야 한다는 점에서 GCED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역 시민단체의 봉사 활동, 레바논의 난민 캠프 방문을 했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Tarozzi, 2023, p. 170) 타로찌 교수의 설명을 통해서, GCED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관적인 삶의 경험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글로벌 차원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화 된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과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정서적 차원의 교육과 함께 행동 영역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GCED는 초, 중등교육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평생교육 또는 시민교육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대학에서의 GCED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Asia 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PCEIU)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시민 교육 대학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태교육원의 사업 결과 2021년 50여 개 대학에서 GCED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GCED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GCED 관련 단일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군(教科群)을 두고 GCED를 하는 것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K대와 S여대를 들 수 있다. K대는

“세계와 시민”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전교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강의를 위해서 2019년 『세계시민』이라는 교재를 출간하였다. K대의 이 강의는 GCED의 영역 중에서 주로 인지적 영역에 집중하여 세계 시민의 개념과 정치, 경제 영역에서 세계시민의 존재 기반 그리고 GCED의 보편적 핵심 가치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S여대는 글로벌 공동체의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기성찰과 다양성, 인권, 정의 등 기본소양을 익히고 구체적 문제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시민 교육과 리더십”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팀 프로젝트로 <글로벌 이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GCED의 실천, 행동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이 핵심 역량 중 하나로 글로벌 역량을 설정하고 있어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교과군을 두고 GCED에 해당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 대학은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대학이 D대학이다. D대는 <전 지구적 사고와 과제>라는 영역을 두고 그 영역 아래 <21세기 시민>, <미래 위험사회와 안전>, <지역 연구>의 중영역을 두고 각각의 중영역에 4개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교과목 중에서 일부는 이론 중심 수업이지만 대부분은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이다.

요약하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단일 교과목을 통해서 GCED를 하거나 교과목 군을 통해 GCED 교과목 군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을 기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GCED 관련 단일 교과목을 통해서 인지적 영역이나 행동 영역의 교육에 집중함으로써 GCED의 전체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리고 교과목 군을 통해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는 방식은 글로벌 역량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원래의 GCED의 취지에 맞지 않는 교과목이 포함되는 사례도 쉽게 발견되고, 학생들의 선택이 그러한 교과목에 집중될 경우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4. GCED와 대학의 교양교육

앞에서 언급한 유네스코의 GCED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GCED는 세계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역량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역량의 함양은 지식의 전수와 달리 기계적인 방식이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량은 계속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맥락과 더불어 사용되어야 하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맥락성(contextuality)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지식이나 기술과 같이 관찰 가능한 요소뿐만 아니라 동기나 태도와 같이 내재적인 특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총체성(totality)을 그 특징으로 갖는다. 뿐만 아니라 역량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역량의 함양은 전일론적(holistic)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교과목을 통해서 하나의 역량을 완전히 함양할 수도 없고, 하나의 교과목을 통해서 하나의 역량만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계시민이 지녀야 할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등은 다양한 교과목을 통해서 오버랩되어야 비로소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손승남 외, 2021, p. 14) 그런 점에서 보편적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역량을 지닌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GCED는 단일한 교과목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한스테트(P. Hanstedt) 교수가 제안한 통합 과목(integrated course)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스테트 교수가 GCED를 염두에 두고 통합과목을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교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가변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이른바 ‘사악한 문제들(wicked problems)’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통합적인 교양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문제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한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대비”시킬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Hanstedt, 2022) 그가 말하는 통합 교과목의 핵심은

두 가지 서로 다른 분야를 학제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면서 이것이 다른 분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주목하고 탐구하게 만드는 데 있다. 통합적 교양교육에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수행하는 과제와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서 학습자들은 한 수업에서 배운 지식이 다른 수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모든 수업에서 배운 지식이 자신의 삶의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스테트의 통합 교과목의 방법을 GCED 교과목에 적용하면, GCED를 위해서 필요한 보편적인 핵심 가치에 대한 이론 수업과 프로젝트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 수업을 통해서 인지적 영역과 사회, 정서적 영역의 교육을 하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창안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실천적 행위 영역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K대의 인지적 차원의 수업과 S여대의 행동 중심의 수업을 결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스테트가 인정하듯이, 통합 교과목은 일반 교과목보다 적은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 인지적 영역과 사회, 정서적 영역에서 충분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행위 영역의 학습을 위한 프로젝트도 내실을 갖고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GCED를 위한 방법으로 시카고대학의 코어 커리큘럼이라고 불리는 교양교육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시카고대학은 인문, 예술 영역, 사회과학 영역, 자연과학 영역의 코어 커리큘럼에서 각각 3개의 교과목을 연속해서 순차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시퀀셜 교과목(Sequential Courses)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사회과학에서 <자아, 문화 그리고 사회>, <권력, 정체성 그리고 저항> 등이 시퀀셜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 GCED를 위해서 시카고대학의 코어 커리큘럼에 주목하는 이유는 GCED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지적 차원의 교육과 사회, 정서적 차원의 교육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이지만 불확실성이 수반되어 가변적이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이른바 사악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행위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카고대학

은 전체 졸업학점 126학점 중 45학점을 공통의 코어 커리큘럼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차 이수의 핵심 교양교육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의 많은 대학은 학생들에게 BSM과 같은 기초과목을 제외하면 핵심 교양교육에서 12학점에서 15학점 정도만 이수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 대학에서 시카고대학의 코어 커리큘럼 방식으로 GCED를 진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결국 가장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인 GCED는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한 자유 학예(Liberal Arts and Science)의 교과목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GCED의 토대는 인권, 다양성, 관용, 정의 등의 보편적인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고 GCED는 이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데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런 보편 가치에 대한 교육은 지금까지 거의 모든 대학에서 교양 교과목으로 제공하고 있는 윤리학 관련 교과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윤리학 관련 교과목은 보편적인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와 함께 공감과 연대의 중요성, 사회적 참여와 책임, 공동체 의식 등의 가치관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윤리학이라는 하나의 강좌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해결 능력이나 다른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상호작용하는 것 등에 대해서까지 배울 수는 없을 것이고, 더욱이 윤리학 수업에서 사회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실천적인 경험에까지 이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교양 교과목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교과목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의 원인과 진단,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고, 학습자들은 그러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환경 문제나 에너지 문제에 대한 성찰과 각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목도 인지적 영역과 사회, 정서적 영역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지만 이를 넘어서 행동 영역의 교육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대학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인지적 차원이나 사회, 정서적 차원의 교육을 넘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행동 영역의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인문학의 윤리학이나 역사 관련 교과목에서 GCED의 보편적인

핵심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고, 경제적 불평등, 다문화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 등에 대해서 다루는 사회과학의 교과목과 환경, 기후, 종 다양성, 에너지 문제 등을 다루는 자연과학의 교과목을 통해서 세계화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한 후, GCED를 위해서 새롭게 제안하는 캡스톤 교과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GCED에서 필요한 행동 영역의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유 학예 교육은 인권, 평화와 갈등, 민주주의 등의 보편적인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감, 협력, 의사소통 등의 역량을 함양하기에 최적의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을 토대로 이미 수강한 교과목을 활용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선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제시하게 하는 캡스톤 교과목을 통해서 GCED를 수행하지는 것이다.

5. 맺음말

GCED는 내용도 광범위하고 그 목표도 다차원적이어서 단일한 교과목을 통해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GCED를 통해서 가르쳐야 하는 다양한 역량이 단일 교과목을 통해서 길러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GCED 관련 단일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인문학,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라는 전통적인 자유 학예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GCED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자유 학예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캡스톤 교과목을 덧붙이는 것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계시민 교육을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박구용.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세계시민교육,” 『사회와 철학』 44, 2022: 65-91.
- 박순용. “세계시민교육 개념의 다원성”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20): 23-51.
- 손승남, 김인영, 송하석, 이재성, 최예정. “고등교육에서의 역량 기반 교육과 핵심역량,” 『교양교육 연구』 15(1), 2021: 11-30.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한국 세계시민 교육이 나아갈 길을 묻다』 (2020, 서울: 살림터).
- 이선경.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한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20): 295-331.
- 이윤주 (2016) “세계시민성 함양과 세계시민교육의 실천방안: 청소년 참여교육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1) 2016: 225-245.
- 정우탁 『세계시민교육과 SDGs』(2022, 서울: 주류성출판사).
- 조대훈. “학교교육의 혁신과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20): 53-82.
- 최현. “시민격(citizenship)과 세계시민 교육,”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20): 119-153
- 한승희. “평생학습 맥락에서의 세계시민성교육,”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20): 83-113.
- Hanstedt, P. “Designing Effective Integrated General Education Courses and Assignment to Better Prepare Students for Complex Thinking,” *International Forum on Liberal Education*, Keynote Speech paper (2022: Seoul).
- Oxfam.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A Guide for School,” <https://www.oxfam.org.uk/education/who-we-are/global-citizenship-guides/>
- Tarozzi, M.,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Europe, the Challenge of Cultural Diversity in Higher Education,” in *Proceedings of Ajou Univ. 50th Anniversay International Forum on Liberal Education*. (2023: Seoul).
- UNESC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2014: UNESCO Publishing).

UNESCO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2015:
UNESCO Publish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Universities: How do we do it?

Song, Hasuk
(Ajou University)

With rapid glob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ransportation, the world is becoming a global community and interdependence is increasing, creating social problems that need to be dealt with jointly at the international level beyond countries. In this situation, the importance of global citizenship has been emphasized, and the need for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 in universities has emerged. This article suggests how to effectively implement GCED as a liberal education in universities. GCED is broad in content and multidimensional in its goals, so it is difficult to expect the effectiveness of a single course. Therefore, strengthening the traditional liberal arts and sciences education should be the starting point of GCED. It will be argued that liberal education will enable students to establish their identity as global citizens and to analyze the social problems that we are facing now, and that adding a capstone course which makes students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s and encourages them to think and act to solve them is a practical and effective way to do GCED.

Keyword ● Global Citizenship,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tegrated Courses,

Liberal Arts and Sciences, Capstone Course of Liberal Education

|| 논문투고일 : 2023. 12. 06. || 심사완료일 : 2023. 12. 17. || 게재확정일 : 2023. 12. 18.